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중산층을 위한 보급형 주택 공급

사회·복지 복지 사각지대의 미성년자들을 돌보는
'돌봄 가족' 정책 시행
닭, 오리 등 가축 사육 허가 제도 시행
청소년직업센터를 통해 방학 기간 청소년 취업 지원

도시교통 시내 도로명에 도시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

도시계획·주택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조합형 공동주택' 추진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이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중산층을 위한 보급형 주택 공급

캐나다 캘거리市 / 도시계획·주택

캐나다 캘거리市는 2009년 특별 조례를 통해 운영되는 비영리/사회적 기업 ‘소유 가능한 주택 공사’(Attainable Home Cooperation)를 설립하여 지역 건설업체와 금융기관을 통해 저가의 주택과 계약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 이를 통해 초기 내 집 마련 자금 부담을 해소하고 주택을 주택 공사와 입주자가 공동 소유하는 정책을 시행

배경 및 목적

- 캘거리市는 특별 조례를 통해 운영되는 비영리/사회적 기업 ‘소유 가능한 주택 공사’(Attainable Home Cooperation)를 2009년에 설립
 - 기본적으로 계약금만으로 중산층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산층을 위한 1,000세대의 보급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
 -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최소한 5년의 주택 대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살도록 장려하기 위해 추진
 - 통상 시중 금융권의 주택 관련 대출 조기 상환 수수료가 주택 구매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면제해 줌으로써 주택 구매를 용이하게 함
- 공사 설립과 함께 캘거리市 소유 부지를 팔고 건설 및 개발 업체,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 캘거리市는 중산층을 위한 주택을 개발할 목적으로 고용센터, 편의시설, 대중교통이 갖추어진 8개 부지를 주택 공사에 매도
 - 2020년 현재 11개 건설 및 개발 업체, 8개 금융기관, 7개 법률회사 및 3개 주택 대출 보험사와 협력관계를 유지

주요 내용

- 지원 자격
 - 市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택 공사의 대출 보증과 개인의 신용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만큼 최저 주택가격 기준으로 연 가구 소득이 최소 연간 45,000달러가 되어야 지원 가능
 - 동거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가구 소득은 연간 103,000달러로 제한

- 동거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가구 소득은 연간 93,000달러로 제한
- 단독 세대의 경우 최대 가구 소득은 연간 83,000달러로 제한
- 세대 구분 없이 자산 규모는 주택 구입 가격의 20% 미만 혹은 최대 50,000달러로 제한

○ 지원 절차 및 요건

- 은행은 계약금 명목으로 주택 구입 가격의 5%를 요구하고, 입주자는 5%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2,000달러를 뺀 나머지 금액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주택 구입 가격의 나머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기간 동안 대출을 상환하고 거주기간별로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짐
- 주택 공사는 주택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입주자와 공동으로 가지게 됨
- 주택의 소유권과 관련된 최소 또는 최대 실거주 요건은 없기 때문에 원하는 기간 만큼 거주할 수 있음
- 입주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는 경우 주택의 시장가격을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비용을 지불해야 함
- 계약 종료 시 공식 감정평가로 주택의 시장가격을 정하고 거주기간에 따라 주택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가치를 배분하여 가지게 되고 나머지는 주택 공사에 귀속
 - 주택 보유기간 1년 미만은 0%
 - 주택 보유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은 25%
 - 주택 보유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은 50%
 -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은 75%

○ 기타 관리 및 행정 사항

- 원칙적으로 반려동물을 허용하되 市 조례를 근거로 반려동물의 수와 크기를 제한
- 현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월별 관리비를 지불해야 함

<https://attainyourhome.com/>

<https://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attainable-homes-calgary-1.3444647>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복지 사각지대의 미성년자들을 돌보는 ‘돌봄 가족’ 정책 시행

이탈리아 피렌체시 / 사회·복지

이탈리아 피렌체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미성년자들을 돌보는 ‘돌봄 가족’ 정책을 시행. 이 정책의 취지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들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

배경 및 목적

- 피렌체시는 매년 10월을 ‘돌봄 가족의 달’로 지정
 - 미성년자들의 안전과 행복은 건강한 사회의 필수 요소라는 사회적 동의 아래 진행
 - ‘돌봄 가족’ 정책은 피렌체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
- 코로나19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기를 겪는 가정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정서적 유대와 안정이 필요한 미성년자들에게 주목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울타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따뜻하고 성숙한 사회를 유지하고자 노력

주요 내용

- ‘돌봄 가족’ 정책의 정의
 - ‘돌봄 가족’ 정책은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미성년자들과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민들을 연결시켜 주는 피렌체시의 정책
 -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만들어가는 시간 동안 아이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상적인 보살핌을 받게 됨
- ‘돌봄 가족’이 되기 위한 절차
 -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아이들을 보살피는 ‘돌봄 가족’이 되기 위한 특별한 지원 자격은 없음
 - 가족, 커플, 개인 등 제한이 없으며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아이들을 신체적, 정서적, 교육적으로 건강하게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면 됨
 - ‘돌봄 가족’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은 미성년자의 상황
 - ‘돌봄 가족’ 심사와 선정 등 모든 절차가 아이들의 상황에 맞춰 진행
 - 다양한 환경에 처한 미성년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절차 진행이 필수

- 市는 그들의 개성과 요청사항을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돌봄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
- 이메일 혹은 전화로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함께 신청할 수 있음
 - 市에서 제공하는 심리검사와 심리상담, 심층 인터뷰, 다른 ‘돌봄 가족’과의 그룹 만남 참여 필수
 - 市, 미성년자 가족, 새로운 ‘돌봄 가족’, 사회복지기관, 소년법원 관계자 등이 함께 최종 선정절차에 참여
- ‘돌봄 가족’의 돌봄 방식
 -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정함
 - 미성년자가 부모님을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새로운 ‘돌봄 가족’과 함께 지내는 방식, 일주일에 며칠 동안 ‘돌봄 가족’과 함께 지내는 방식,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돌봄 가족’과 함께 지내는 방식 등이 있음
 - 아이들과 ‘돌봄 가족’의 상황에 맞춰 조정 가능
- ‘돌봄 가족’ 정책의 목표
 - 아이들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 새로운 ‘돌봄 가족’의 보살핌은 일시적인 것이며, 원래 가족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돌봐주는 것을 원칙으로 함
 - 市는 새로운 ‘돌봄 가족’과 아이들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본래 가족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돌봄 가족’ 정책의 진행 상황
 - 2013년부터 2020년 10월 현재까지 총 69명의 아이들이 새로운 ‘돌봄 가족’을 만남
 - 2019년에는 19명의 미성년자들이 새로운 ‘돌봄 가족’을 만나 보살핌을 받고, 이 중 12명은 안전하게 원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감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10월까지 9명의 어린이가 ‘돌봄 가족’의 보살핌을 받음
 - 그동안 개인과 가족 등 110개 그룹이 ‘돌봄 가족’의 지원자로 신청

정책 평가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성년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제시
 - 일반적으로 다른 가정의 아이들을 쉽게 도울 수 없는 이유는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여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심리적 거리감이 생긴 사회에서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 제공
 -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무조건적인 배움을 행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방법임을 보여주는 사례

<https://sociale.comune.fi.it/dalle-redazioni/ottobre-il-mese-dellaffidamento-familiare>

<https://sociale.comune.fi.it/affidamento-familiare>

<https://servizi.comune.fi.it/servizi/scheda-servizio/affidamento-familiare>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닭, 오리 등 가축 사육 허가 제도 시행

캐나다 캘거리市 / 사회·복지

캐나다 캘거리市는 반려동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닭, 오리, 비둘기 등을 ‘정서적 지원 동물’로 분류하고 시민들의 보건 및 안전을 증대하고 소유자와 이웃 주민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제를 시행. 이를 통해 동물 소유자와 반려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배경 및 목적

- 캘거리市에서는 몇 해 전까지 책임 반려동물 소유권 조례 23M2006에 따라 소, 돼지, 닭 등 가축으로 불리는 동물을 캘거리의 토지이용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도시의 모든 지역에서 사육할 수 없었음
 - 도시에서 가축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
 - 반려견, 반려묘가 아닌 염소, 돼지, 닭 등의 소유자와 주변 입주민의 갈등 증가
- 캘거리市는 2018년 10월 ‘책임 반려동물 소유권 조례’ 개정을 통해 ‘정서적 지원 동물’(Livestock Emotional Support Animal, 이하 LESA) 허가 제도를 시행
 - LESA에 대한 市의 허가 제도는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동물복지 및 적절한 보살핌의 균형을 도모하는 동시에 시민의 생활환경도 고려

‘정서적 지원 동물’ 허가 제도의 주요 내용

- LESA의 종류와 ‘서비스 동물’과의 차이점
 - LESA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한다고 판단한 반려동물이며, 일반적인 반려동물로 알려진 개, 고양이 등은 제외
 - 캘거리의 관련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동물을 LESA의 예시로 기술
 - 말, 염소, 거위, 타조, 낙타, 라마, 양, 돼지, 밍크, 여우, 닭, 칠면조, 오리, 비둘기 등
 - 사슴, 무스, 바이슨 등의 토종 동물
 - LESA와 달리 ‘서비스 동물’은 장애인을 돕기 위해 훈련된 동물로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이 대표적
 - LESA는 ‘서비스 동물’과 달리 시민의 건강 및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임의적 이동, 출입을 사업주 또는 운송업체 등에 요구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

○ 허가 신청 관련 일반 사항

- 허가 신청 주체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대리하여 신청 가능
- 허가 신청비는 연간 67달러
- 허가 신청 시 필요 정보
 - LESA 거주지 주소와 LESA가 실제 지내는 구조물 크기(총면적 및 높이) 및 위치
 -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심리학자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지난 6개월 동안 기술한 정신장애 진단 내용 및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해당 동물이 필요하다고 작성한 추천서
 - 동물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수의사 연락처
- 허가증은 1년 동안 유효하며, 매년 갱신해야 함

○ 기타 제한 사항

- LESA는 지정된 공간에서만 지내야 함
- LESA는 공공시설, 목줄 없이 산책할 수 있는 공원 등의 방문이 금지
- 연방정부 및 주정부 법률은 특정 외래동물 및 야생동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市는 이에 따라 특정 동물을 제한
-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웃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면 동물 소유주는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함

주변 도시의 동물복지 조례 사례

○ 에드먼턴市의 암탉 사육 허가제

- 중장기 계획인 에드먼턴 도시농업 전략의 일환으로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6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도시 암탉 사육 정책은 2019년 연간 50건으로 제한하던 허가건수를 무제한으로 허용
-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의 정서 안정 및 먹거리 제공 등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사진 1] 집에서 닭을 기르고 있는 캘거리의 한 가정

출처: CBC 뉴스

<https://www.cbc.ca/news/canada/calgary/calgary-woman-emotional-livestock-chickens-1.5123782>

<https://calgary.ctvnews.ca/pot-bellied-pig-s-owner-looks-to-sell-calgary-home-after-by-law-officers-deliver-ultimatum-1.3484351>

<https://www.calgary.ca/csps/abs/animal-services/responsible-pet-ownership-by-law-livestock.html>

<https://www.sherwoodparknews.com/news/local-news/animal-control-by-law-replacement-in-the-works>

https://www.edmonton.ca/city_government/initiatives_innovation/food_and_agriculture/hen-guidelines.aspx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청소년직업센터를 통해 방학 기간 청소년 취업 지원

캐나다 캘거리市 / 사회·복지

캐나다 캘거리市는 청소년직업센터(Youth Employment Center)를 통해 15~24세 청소년 및 청년에게 무료 직업체험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 다양한 기업 및 청소년 서비스 기관과 협력하여 무료 경력개발 기회 및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배경 및 목적

- 캐나다에서 일반화된 방학 기간 청소년 파트타임
 - 캐나다는 5, 6월부터 3~4개월간 지속되는 긴 여름방학 기간에 청소년의 파트타임이 일반화되어 있음
 - 부모들은 아이들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파트타임을 하도록 권장
 - 교육청에 따르면, 파트타임 경험은 학생의 책임감과 돈·시간 관리능력을 키워주고 전공 선택 전 여러 분야를 경험해볼 수 있으며 채용절차를 미리 경험해보고 사회에 일찍 진출해 인맥도 쌓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참고로, 15~19세 청소년의 단기취업 이상 취업자는 2020년 기준 약 35%
- 청소년 고용법과 학교법을 통한 청소년 권리 보호
 - 캘거리市가 속해 있는 앨버타州의 근로자법은 15~18세를 노동 가능한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고, 성인과 같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음
 - 2020년 현재 청소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로 규정되어 있음
 - 학교수업이 없는 휴일은 8시간, 정규수업일에는 2시간 이상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음
- 청소년직업센터를 통한 청소년 고용 지원
 - 2018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캐나다 청소년 40,000명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5년 목표를 설정
 - 최근 불경기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캘거리의 청년 실업률이 높음
 - 캘거리의 청소년직업센터(Youth Employment Center, YEC)는 15~24세 청소년에게 무료 직업체험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

청소년 고용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

- 경력개발 기회 및 고용 지원 서비스
 - 일반적인 청소년 고용 지원 서비스
 - 일대일 취업 상담 지원,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 지원, 채용정보 제공, 연례 청년 고용 박람회 개최, 장학금 제공, 업무체험 프로그램 시행, 건설안전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획득 기회 제공
 - 특별 지원 서비스
 - 캐나다의 원주민 기금은 취업 프로그램에 있어 원주민을 우선 지원
 - 임금 보조금과 여름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
- 외부기관 협력 프로그램
 -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The Journey Forward) 프로그램
 - 자원봉사자들이 10명 규모의 소규모 비공식 토론 그룹을 구성해 각자의 직업을 소개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도록 동기를 부여
 - 학교 졸업을 목표로 한 청소년을 위한 모든 것(All In for Youth) 프로그램
 - 멘토링, 성공 코칭, 방과 후 학습, 가족 지원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구성
 - 2012년 캘거리 청소년의 25%가 제때 졸업을 하지 못했으나 이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현재 20%로 줄었음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서비스

- 온라인 경력 평가 서비스 ‘경력 영웅’(Career Hero)
 - 총 7개의 모듈로 구성된 경력 평가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강의와 토의를 통해 진행
 - 성공을 위한 준비, 선택과 책임, 자신을 알기, 경력개발, 전략적 계획, 비전 제시 등으로 구성
 - 경력 전문가 등의 도움으로 경력 계획을 설계할 수 있음
- 직업기술 교육 및 유급(有給) 근로 프로그램
 - This Way Ahead는 의류회사인 갭(Gap Inc.)과 제휴하여 16~24세 청소년이 첫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기술 교육 및 유급(有給) 근로 프로그램 시행
 - 2007년 뉴욕市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북미 지역 15개 이상의 도시로 확대

타 지역의 유사 프로그램

- 온타리오 州정부는 여름 취업기회(Summer Employment Opportunities, SEO) 프로그램을 통해 이와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음
- ‘모든 청소년을 위한 기회’(Opportunity for All Youth)는 청소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토市에서 시작된 전국적 프로그램
 - 2018년 9월부터 청소년직업센터와 함께 취업 준비가 되어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채용, 경력개발에 중점을 둠

<https://www.calgary.ca/csps/cns/children-and-youth/youth-employment-centre.html>

<https://globalnews.ca/video/7120244/what-can-students-expect-on-the-job-front-for-summer-2020>

<https://www.myunitedway.ca/allinfor youth/>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시내 도로명에 도시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 / 도시교통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는 도로 등 공공장소 명칭을 통해 성 정체성, 출신지, 종교, 장애 유무, 성적 지향, 정치 성향 등으로 인해 소외되어온 개인 및 집단이 보다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함. 시민들이 탈식민주의 운동가와 인권 및 평화운동가, 운동선수, 예술가 등을 도로 등 공공장소 명칭으로 직접 제안할 수 있음

배경 및 목적

- 암스테르담市는 지난 2018년 “다양성 도시” 정책을 채택하면서 도로명에도 이러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
 - 도로명은 단순한 고유명사가 아니라 도시와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음
 - 2018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스테르담 시내 5,419개 도로명 중 2,014개가 인명(人名)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중 1,770개가 남성의 이름
 - 직군별로 분류하면 작가와 정치인, 과학자 등이 많으며, 시기상으로는 1540년에서 1640년 사이에 태어나 네덜란드의 황금기(식민지 개척 시기)를 살았던 인물이 다수
 - 도로명에 보다 다양한 정체성과 문화적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도시공간에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주요 내용

- 시민들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 보다 다양한 인물과 그들의 배경, 정체성, 역사가 도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여성을 비롯하여 출신지, 종교, 장애 유무, 성적 지향, 정치적 지향 등 기존에 과소 대표된 정체성을 우선 반영
 - 최근 개발되어 도로명이 없는 곳에 우선 적용하며, 식민지배와 노예무역 등 과오가 있는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딴 도로명도 점진적으로 바뀌나갈 계획
- 시민들의 제안은 공공장소명칭선정위원회(CNOR)가 매해 심사/평가하며, 암스테르담 건립 750주년이 되는 2025년에 최종 심사 및 선정 결과를 발표
 - 인권운동, 이주 역사, 탈식민주의, 제2차 세계대전 등 광범위한 주제어를 먼저 공모

- CNOR(De Commissie voor Naamgeving Openbare Ruimte)의 심사를 거쳐 주제어가 선정되면 이후 보다 구체적인 개별 인물을 제안할 수 있음
 -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상징적인 인물이어야 함
 - 왕실 구성원이 아닌 인물의 경우 사후 5년이 경과하여야 함
 - 기존에 있는 도로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CNOR과 대상 도로가 있는 지역 집행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최종 결정

정책 평가

- 市政府 차원에서 도로명을 공모함으로써 과거사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음
 - 백인 남성의 이름을 딴 도로명을 바꾸기 위한 흑인 인권단체 및 여성단체의 노력이 꾸준히 있어왔으나, 실제로 변경 및 적용된 사례는 없음
 - 로테르담 소재 현대미술관 Witte de With¹⁾가 식민주의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기관명을 변경한 바 있으나, 정부 차원의 개선 시도는 초기 단계
 - 로테르담시를 비롯하여 다른 주요 도시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음

<https://www.amsterdam.nl/nieuws/nieuwsoverzicht/straatnamen/>

<https://www.amsterdam.nl/veelgevraagd/?caseid=%7B1D384EA9-C370-4AF7-BA0B-69429B4EAACA%7D>

<https://www.parool.nl/cs-b78727bd>

<https://decorrespondent.nl/7838/van-pythagoras-tot-amalia-hoe-wij-5-400-amsterdamse-straatnamen-analyseerden/2120713716198-0dacc343>

https://www.fkawdw.nl/en/about_us/news/on_27_january_2021_you_can_call_us_kunstinstituut_melly

장 한 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

1) 미술관이 위치해 있는 도로명(Witte de Withstraat)에서 따온 이름으로, 해당 도로명은 네덜란드의 식민지 경영(동인도회사 및 서인도회사)에 크게 기여한 Witte de With로부터 유래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조합형 공동주택’ 추진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도시계획·주택

바르셀로나市는 ‘바르셀로나 주택정책 2016-2025’의 일환으로 사회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형 공동주택 모델’을 추진. 조합형 공동주택은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 자치조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새로운 공동주거 형태를 제시하는 도시주택 유형. 市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축과 참여형 건설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 중심의 조합형 공동주택 ‘라 보르다’를 건립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바르셀로나 주택정책 현황

- 바르셀로나 주택정책의 배경 및 목적
 - 주택 구입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단지 증설
 - 인근 도시로부터의 이주 인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 증가량이 예상보다 많지만 사회주택 건설량은 예상 목표량에 미치지 못하여 주택 공급 부족 현상 발생
 - 주택 건설 감소와 임대주택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이에 따른 고소득층 임차인 증가 등 발생
 - 주택 마련과 유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보 제공, 중개 및 지원 강화
 - 임대료 미납 및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한 퇴거 등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발생
 - 지역별 주택가격의 차이보다는 지역 간 소득 불균형으로 인해 주택을 마련하기 쉬운 지역과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지역 발생
 - 관광 등 주거 외 용도로의 주택 용도 변경 방지 및 거주자 보호
 - 관광객용 불법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이 늘어나 주거용 주택 마련의 어려움 증가
 - 특정 지역의 사회취약계층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주택 단지를 저가 주택으로 운영하여 저가 주택을 다양한 지역에 분산 배치
 -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개발정책 시행
 - 노후 및 불량 주택 증가,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악화 및 주택 부족, 접근성 및 에너지 효율성 미흡 등 기존 주택 단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 보존 상태가 나쁜 낡은 주택, 비어 있는 주택, 과밀 주택 등 주택의 비정상적 사용 방지
 - 빈집이 도시 내 주택의 4~11%에 이름
 - 인구 고령화에 대비

- 바르셀로나 주택정책의 4가지 축
 - 저가 주택 단지 공급 확대
 - 긴급 주거 및 퇴거 상황 방지
 - 주택의 용도 변경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
 - 현 주택 단지의 문제점 개선 및 거주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재개발 양식 개발

새로운 형태의 도시주택인 ‘조합형 공동주택’ 추진

- 조합형 공동주택의 정의
 -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건물의 소유주 혹은 임대인이 되지 않고 한 건물에서 50년에서 100년간 보장된 기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형태
- 조합형 공동주택 추진 배경
 - 사회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특색 있는 저가 주택 단지 공급 확대
 - 주택을 재산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사회주택의 개념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 개발
 -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고, 상호 지원과 커뮤니티 구축을 기반으로 비(非)투기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도시주택 추진
- 조합형 공동주택의 목적
 - 양질의 저가 주택 공급
 - 토지의 공공 소유권 유지 및 지상권(地上權) 제공
 - 주택 투기 방지
 -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 추구
 - 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관리 촉진
- 조합형 공동주택 프로젝트 실행 단계별 특징
 - 조합의 공동주택 건설 및 운영 신청
 - 공공 혹은 민간 소유의 미이용 대지에 특정 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양도하며,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은 주택에 입주하고 매달 주택 이용료를 지불
 -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촉진하고 조합원들의 자치조직 구성을 장려하며, 이러한 주거모델을 통해 주택을 투자재가 아닌 사용재로 간주
 - 조합형 공동주택 건설
 - 주택의 친환경 기준 준수 및 주택 내 기본 인프라의 공동 사용과 주택 운영에 대한 거주자들의 공동 책임 등 커뮤니티 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

- 해당 주택을 건설 및 운영하는 주체인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지상권 양도 기간은 75년이며, 90년까지 연장 가능
- 지상권 양도 기간이 끝나면 주택은 지자체 소유가 됨
- 조합원의 공동주택 입주
 -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분류되며, 조합원들이 주택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고 주택 신청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입주 가능
- 조합형 공동주택 건설계획 추진현황
 - 바르셀로나 공동주택위원회 구성
 -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바르셀로나 사회주택 위원회’ 산하 공동주택 관련 실무그룹으로 ‘바르셀로나 공동주택위원회’를 구성
 - 위원회는 윤리금융 및 각 공동주택 조합의 대표로 구성
 - 위원회의 역할은 공동주택 모델 공동 구축임
 - 조합형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시립 부지 공개입찰
 - 공동주택 신청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바르셀로나 시의회의 조치로 시립 부지에 대한 공개입찰 발표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할당된 해당 부지는 도시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
 - 공개입찰을 통해 전통적인 주택 소유 및 임대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주택모델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음
 - 총 10개 부지가 조합들에게 제공되어 약 25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 가능

커뮤니티 구축을 기반으로 한 조합형 공동주택 ‘라 보르다(La Borda)’



[사진 1] 공동주택 '라 보르다'의 전면과 내부

- 프로젝트의 특징
 - 지역 단위 프로젝트와의 연계
 - 재개발 계획의 지연으로 방치된 옛 방직공장에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지역 문화 공간을 형성하여 현재는 주민들과 시의회의 협력을 통해 협동조합 문화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

- 참여형 건축
 - 건축물 설계, 시공 및 사용 과정에 입주 예정자가 참여하여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
- 커뮤니티 중심의 유연한 공간 구성
 - 대중적인 주택 형태인 중정형 건축 ‘코탈라’ 형태의 디자인 적용
 - 커뮤니티 생활 활성화
 - 다양한 규모의 주거 단위를 혼합 배치하고, 50㎡의 기본 구조에 두 개의 모듈을 두어 주거공간 규모의 변경이 가능
-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료 및 설비 사용
 - 지역의 자원 및 재활용 자원을 활용
 - 재생에너지 사용
 - 중앙집중형 시스템 운영
 - 탈부착이 쉬운 목재를 벽의 주재료로 사용하여 향후 증축 및 축소 용이, 공사 기간 4개월 단축, 실내 습도의 원활한 조절 가능
 - 충분한 단열과 태양열 사용의 최대화, 교차 환기 및 아프리오움을 통한 친환경 디자인 적용
 - 입주 예정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실내환경 조성
- 공동생활 형태
 - 세탁공간의 공유를 통해 전통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회복하고 주택 내부 공간을 확보
 - 함께 요리하고 식사할 수 있는 공동 식당 및 주방과 거실 조성
 -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입주자들을 위한 건강관리와 돌봄 공간 조성
 - 성인과 어린이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간 조성
 - 공용 테라스 및 공동 작업공간 조성
 - 방문객용 공간, 자전거 주차장, 창고 등 조성

정책 평가

- 주거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주거형태 제시
- 주택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임대료 상승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도시주택 모델
- 주거의 안정성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전반적인 주민의 삶의 질 개선
- 투자 대상이 아닌 주거공간으로서 주택의 사회적 가치 증진

<https://habitatge.barcelona/es/acceso-a-vivienda/covivienda>

https://habitatge.barcelona/sites/default/files/pdhb_-_resum_executiu_versio_accessible_0_0.pdf

https://habitatge.barcelona/sites/default/files/documents/pdhb_volum_ii_pla_pel_dret_a_lhabitatge_2016-2025.pdf

<http://www.laborda.coop/es/>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세계도시동향 제498호

발행인 유기영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1년 3월 8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